

공감이 지각된 가해의도에 따라 용서동기에 미치는 효과

김 상 현[†]

금 명 자

대구대학교

본 연구는 용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공감이 피해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에 따라 용서동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게 가해자의 고의적인 가해상황을 나타내는 지문이나 우연적인 가해상황을 나타내는 지문을 제시한 후, 지문 속의 가해자에 대한 용서동기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용서동기가 높았으나,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을 때에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용서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할 때에는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보복하지 않으려는 비보복동기는 증가하지만 회피하지 않으려는 비회피동기는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가해 의도성이 용서동기에 미치는 공감의 영향을 조절하고 있다는 결과는 용서동기를 높이려는 프로그램과 상담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용서동기, 공감수준, 가해의도성

[†] 교신저자: 김상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702-06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 1가 125번지
Tel: 053-428-5898, Email: anhae7@nate.com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는 현대의 생활에서 용서는 대표적 미덕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종교와 철학, 문학 등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 같다. 김광수(2002)는 용서가 가지는 이점으로 정서적 유익과 안녕을 회복시켜 주고,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개인적 통제력을 회복하게 하며, 화해의 촉진 등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지연(2008)도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임효진(2005)은 용서 이후 달라진 점을 분석 하였는데, 용서를 한 이후에 복수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줄었다는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포함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의 발달, 인간적인 성숙,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성장 등이 나타났다 보고하였다. 박종효(2006)는 용서한 사람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분노나 적대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정서나 태도를 갖게 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 수 있으며 개인 내적 치유와 대인관계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nright(2004)는 용서란 행동, 인지, 정서가 통합된 복합적인 과정으로 부정적인 사고, 행동, 감정을 보다 긍정적인 사고, 행동,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종효(2006)는 보다 조작적으로 용서를 정의하였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분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사고를 줄이고 동정이나 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나 사고를 증가시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McCullough, Worthington 및 Rachal(1997)은 용서를 동기의 변화로 이해하면서 용서를 가해자에 대한 보복, 불화, 반목하려는 동기를 줄이고 관계를 건설하고, 화해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Keams와 Ficham(2004)도 용서에는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와 회피하려는 동기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범과 임효진(2006)도 용서란 가해한 당사자로부터 피해자가 거리를 유지하고, 보복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가 감소되고, 화해 행동을 추구하는 동기가 증진될 때 일어나는 전환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논의하였다. 즉 대인간 용서를 동기적 변환으로 설명하며, 보복동기와 회피동기의 감소 등 세 단계의 변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먼저 가해자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감소하고, 두 번째는 가해자와의 소원함을 지속시키려는 회피동기가 감소하며,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가해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의와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진된다고 하였다.

한편 Enright(1999)는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공감과 이해수준을 들었다. 그는 새로운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과 남에게 잘못했거나 피해를 준 체험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 등에 따라 용서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Takaku(2001)도 공감을 촉진할 수 있는 관점수용조작이 용서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Wade와 Worthington(2003)은 공감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감소시키고 용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감수준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이 용서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본 양영숙(2008)은 공감과 용서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것은 배우자에 대해 보다 높은 공감을 경험할수록 배우자에게 보다 자비롭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Ficham(200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Keams와 Ficham(2004)은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보복동기와 회피동기가 낮아져서 부모를 더 용서한다고 하였다. 이지선(2009)도 공감이 부모에 대한 용서에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효진(2005)은 공감이 회피동기, 보복동기, 보복행동, 유사용서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용서의 순기능인 마음 풀어짐에 대해서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공감은 용서에 필요한 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공감이 용서를 앞당긴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감이 용서와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항상 이끌어 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2010)의 연구에서 공감과 용서 경향성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이 높을수록 용서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감은 용서경향성의 하위요인인 타인용서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자기용서와 상황수용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Icekes(2003)는 공감에는 어두운 면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공감이 필요한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교사, 변호사, 정치인, 외교관, 건강관리 전문가, 관리자, 협상가 판매원과 같은 예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적 매춘업자, 매춘부, 야비위꾼, 사기꾼의 예를 들면서 공감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감 수준을 높이는 훈련은 공감을 잘하는 교사, 의사, 관리자, 외교관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기 이익만을 쫓는 정치인에서 가짜 거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범죄자와 사기꾼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공감은 친사회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반사회적인 목적으로도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뛰어난 공감은 친사회적인 목적으로 쓰이면 화목을 증진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전반적인 행복을 촉진할 수 있으나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쓰이면 그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공감이 사용되는 의도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용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의도성이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김시은(2000)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타인의 행위를 우연에 의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도된 것으로 보느냐, 또는 상대방의 의도를 선의로 간주하느냐 악의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나 대인지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임효진(2006)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용서할 때의 이유와 용서하지 못할 때의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용서한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34.53%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용서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들은 의도나 인간됨이 나빠서(20.93%), 피해/상처가 너무 커서(13.95%), 상대방이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서(13.95%) 순으로 용서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용서에서

가해자의 의도나 인간성이 용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서신화(2008)는 기혼남녀에게서 용서를 인지적 용서, 정서적 용서 및 행동적 용서로 나누어 이들 각 용서에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남성의 정서적 용서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에 영향을 받았고 여성의 정서적 용서는 '결혼 년 수'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 그리고 '학력'에 영향을 받았다. 남성의 인지적 용서는 '상처받은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의 인지적 용서는 '결혼 년 수'와 '학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행동적 용서에는 '상처의 부당함 정도'와 '문제발생의 의도성 여부'가 영향력을 가지며 여성의 경우 '결혼 년 수'와 '나 자신 책임소재'가 행동적 용서에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용서의 하위 요소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의도성이 용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해자의 공감수준이 용서동기에 영향을 미칠 때, 피해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이 조절효과를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피해자의 공감수준이 높으면 피해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우연적일 때는 용서동기가 증가하지만, 피해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고의적일 때는 피해자의 공감수준이 높더라도 용서동기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앞에서 소개하였던 연구들(McCullough, Worthington 및 Rachal, 1997; Keams와 Ficham, 2004; 김기범과 임효진, 2006)은 용서를 보복동기의 감소, 회피동기의 감소 및 화해행동의 증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

복동기의 감소를 비보복동기의 증가, 회피동기의 감소를 비회피동기의 증가로 용서동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실제 용서란 보복하지 않으려는 동기, 회피하지 않으려는 동기이므로 개념의 일관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또한 화해행동의 증가는 유사실험연구로는 측정하기 어려워 비보복동기와 비회피동기로만 용서동기를 측정하였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박주영(2010)의 연구에서는 공감수준이 용서경향성의 하위요인인 상황수용과 개인용서와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타인용서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고의적이어서 피해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면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상황을 돌아보는 용서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회피동기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우연적이라면 고의적일 때보다 비슷한 피해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가해자를 회피하는 경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보복동기는 일반적인 연구들의 결과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감수준이 높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으로 지각할 때, 용서동기의 하위요인인 비보복동기와 비회피동기가 모두 높아져서 공감수준이 낮은 피해자보다 용서동기가 높을 것이다.

두 번째, 공감수준이 높은 피해자는 가해자

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 용서동기의 하위요인인 비보복동기는 높아지고 비회피동기는 낮아져서 공감수준이 낮은 피험자와 용서동기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A-type의 설문지에 참여한 피험자들 중에 공감수준이 상위 25%에 속하는 51명(남성: 11명, 여성: 40명)을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공감수준이 하위 25%에 속하는 51명(남성: 33명, 여성: 18명)을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배치하였다. B-type의 설문지에 참여한 피험자들 중에 공감수준이 상위 25%에 속하는 56명(남성: 16명, 여성: 40명)을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공감수준이 하위 25%에 속하는 56명(남성: 32명, 여성: 24명)을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배치하였다.

측정 도구

용서동기 척도

배정은(2006)이 사용한 용서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ccullough (1998, 배정은(2006) 재인용)가 개발한 TRIM(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을 배정은(2006)이 변안하여 사용하였었다. TRIM은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측정하는 보복동기와 당사자와의 소원함을 지속시키려는 회피동기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복동기 5문항, 회피동기 7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문항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수준반응의 리커트형식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되 비보복동기와 비회피동기를 측정해야 하므로 역산하여 측정하였다. 배정은(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86이고 본 연구에서는 .92이다(표 1).

공감 척도

대학생들의 공감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성희(1997)가 개발한 공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조망 취하기 5문항, 상상하기 5문항, 공감적 각성 15문항, 공감적 관심 5문항 등 4개의 하위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검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높다. 조망취하기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측정하고, 상상하기는 자신이 영화, 소설, 연극 등과 같은 가상적인 상황속의 인물이 되어 보는 상상력을 측정한다.

표 1. 용서동기 측정도구의 문항분석 및 신뢰도

영역	내용	문항 수	신뢰도
보복동기	당사자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	5	0.93
회피동기	당사자와 소원함을 지속시키려는 동기	7	0.87
	계	12	0.92

표 2. 공감수준 측정도구의 문항분석 및 신뢰도

영역	내용	문항수	신뢰도
인지적 공감	상대방의 관점수용 및 상상력	10	.61
정서적 공감	자비, 온정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 및 정서적 각성상태	20	.83
계		30	.84

공감적 각성은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 상태를 측정하고 공감적 관심은 상대방에 대해 온정,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원래 박성희(1997)는 조망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으로,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은 정서적 공감으로 측정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지 않고 총합을 구하여 공감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4이다(표 2).

상황극 지문

의도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예비지문을 만들어 3차에 걸쳐서 수정 보완하여서 지문을 완성하였다. 내용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검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지문 속의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가장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지문 세 개와 가해 의도를 가장 우연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지문 세 개를 선정하였다. 이 지문을 사용하여 본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가해상황을 고의적, 또는 우연적으로 지각하도록 통제하였다. 1차에서 사전검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평균연령 24.6세로 10명, 2차에서 사전검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평균연령 23.2세로 12명, 3차에서 사전검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평균연령 22.6세로 11명이였다. 의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단일 문항으로서, 정말 고의적이다(2점), 대체로 고의적이다(1점), 보통이다 (0점), 대체로 우연적이다(-1점), 정말 우연적이다(-2)의 5수준반응의 리커트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척도에서의 점수가 0보다 작을수록 가해자의 가해상황이 더 우연적이라고 보았고 0보다 클수록 가해자의 가해상황이 더 고의적이라고 보았다. 연구에서 사용된 상황별 지문의 예시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서 다음에 제시하였다.

(우연적 가해상황-어머니의 교통사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곁에 서있었다. 나는 운전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따져 물었다. 운전자는 회사의 급한 일로 회사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고 한다. 이때 어머니가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길을 건너려고 급히 횡단보도로 뛰어 들었는데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운전자는 정말 미안하다고 회사의 일이 너무 급해서 서행하지 않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날 줄 몰랐으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였다.

(고의적인 가해상황-부도를 낸 아버지 친구)

...어느 날 김씨 아저씨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주위의 전문가들은 지금은 사업을 확장할 때가 아니라 안정화 시킬 때

라며 확장을 해서 운이 좋아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전문가의 경고를 듣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김씨 아저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나의 아버지도 김씨 아저씨의 그럴싸한 말을 믿고 집을 담보 잡혀서 일역을 공장에 투자를 하였다. 김씨 아저씨는 빌린 돈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큰 사업을 시작 하였다.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상황은 처음보다 점점 더 나빠져서 김씨 아저씨의 공장은 부도가 나버렸다. 부도가 나자 김씨 아저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모든 제산을 챙겨서 급히 해외로 도주해 버렸다..

연구절차

공감척도, 용서동기척도 및 지문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두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type은 공감척도와 가해자의 우연적인 가해상황을 나타내는 지문 세 개와 각 지문에 따른 용서척도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B-type은 공감척도와 가해자의 고의적인 가해상황을 나타내는 지문 세 개와 각 지문에 따른 용서척도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설문지를 받았다. 설문지를 받은 피험자는 먼저 공감척도를 완성한 후, 지문 속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이번 학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로 상상하며 읽게 하였고, 용서동기척도를 사용하여 지문 속의 가해자에 대한 용서동기를 표시하게 하였다.

분석방법

SAS 8.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감의 수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25%와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으로 높은 공감집단과 낮은 공감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공감수준과 가해의도에 따른 용서동기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별 용서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피험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성과 피험자의 공감수준이 용서의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용서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여서 이원변량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TRIM 척도에서 용서동기는 보복동기와 회피동기의 점수를 역 전환 시킨 점수를 합산하여서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복동기의 점수를 역 전환 시킨 점수들이 보복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나타낸다고 보고 보복동기의 점수를 역 전환 시킨 수치를 나타내는 요인을 “비보복동기”로 명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피동기의 점수를 역 전환 시킨 점수들이 회피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나타낸다고 보고 회피동기의 점수를 역 전환 시킨 수치를 나타내는 요인을 “비회피동기”로 명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용서동기에 대한 공감수준과 지각된 의도성의 단순 주효과 분석

피험자의 공감수준과 지각된 가해자의 가해의도에 따른 용서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공감수준과 의도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F=9.37, P<.01$ 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상호작용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피험자들이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의 효과가 $F=10.40, P<.01$ 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의 효과는 $F=0.42, P=0.5188$ 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의 우연적인 가해상황에서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용서동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의 고의적인 가해상황에서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용서동기가 평균적으로 낮았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에서의 “공감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이 낮은 피험자보다 용서동기가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가설 2에서의 “공감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이 낮은 피험자와 용서동기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지하였다.

용서의 하위척도별 공감수준과 지각된 의도성의 효과

먼저 피험자의 공감수준과 지각된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에 따른 비보복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감수준의 주효과는 $F=14.92, P<.001$, 의도성의 주효과는 $F=227.37, P<.0001$, 상호작용효과는 $F=3.52, P=.0621$ 로 나타났다(표 4). 즉,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표 3. 공감수준과 지각된 의도성에 따른 용서동기

의도성				의도성	공감수준	A*B
고의적		우연적				
낮은 공감	높은 공감	낮은 공감	높은 공감	(A)	(B)	
M(SD)	M(SD)	M(SD)	M(SD)			
55.18 (14.94)	53.13 (16.96)	79.55 (20.87)	92.92 (20.63)	162.13***	5.05*	9.37**

* $P<.05$, ** $P<.01$, *** $P<.001$

표 4. 공감수준과 지각된 의도성에 따른 비보복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의도성				의도성	공감수준	A*B
고의적		우연적				
낮은 공감	높은 공감	낮은 공감	높은 공감	(A)	(B)	
M(SD)	M(SD)	M(SD)	M(SD)			
17.98(9.87)	20.73(10.36)	36.25(10.42)	44.20(9.77)	227.37***	14.92**	3.52

* $P<.05$, ** $P<.01$, *** $P<.001$

낮은 집단보다 비보복동기가 높았으며, 의도성이 우연적일 때가 고의적일 때보다 비보복동기가 높았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보복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으로 지각할 때도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보복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공감수준과 지각된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에 따른 비회피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F=10.63, P<.01$ 로 나타나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의 효과가 $F=5.72, P<.05$ 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는 공감수준의 효과가 $F=4.91, P<.05$ 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을 우연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회피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을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회피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에서의 “공감수준이 높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 용서동기의 하위요인인 비보복동기는 높아지고 비회피동기는 낮아져서 공감수준이 낮은 피해자와 용서동기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지했다. 즉, 가해의도가 고의적일 때 공감수준에 따른 용서동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본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비보복동기는 높았지만 비회피동기는 낮았기 때문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용서의 과정 중에서 피해자의 공감수준이 용서동기에 영향을 줄 때 항상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인과 상호작용 하여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용서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 보복하고자 하지 않으며(비보복동기), 더 이상 그를 피하고자 하지 않는 것(비회피동기)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감이 용서에 대해서 주효과가 있거나 용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높은 공감수준을 가진 피해자라도 가해

표 5. 공감수준과 지각된 의도성에 따른 비회피동기

의도성				의도성	공감수준	A*B
고의적		우연적				
낮은 공감	높은 공감	낮은 공감	높은 공감	(A)	(B)	
M(SD)	M(SD)	M(SD)	M(SD)			
37.20(8.96)	32.39(11.61)	43.29(12.60)	48.73(12.55)	51.04***	0.04	10.63**

* $P<.05$, ** $P<.01$, *** $P<.001$

자의 가해 의도성에 따라 용서의 동기가 달라질 것을 가정하였다. 즉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신에게 우연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해 비보복동기와 비회피동기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우연적일 때,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과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 사이에 용서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우연적으로 지각할 때는 피해자의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용서동기가 높았고 피해자의 공감수준이 낮을수록 피해자의 용서동기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수준이 용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선(2009)과 양영숙(2008), 임효진(2006)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피험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고의적일 때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과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 사이에 용서동기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동기의 하위척도들인 비보복동기와 비회피동기가 고의적 가해상황에서는 높은 공감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즉 공감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고의적으로 지각할 때, 공감수준이 낮은 피험자들보다 비보복동기는 높았지만 비회피동기는 낮았다. 박주영(2010)의 연구에서 공감과 용서 경향성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이 용서경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타인용서를 제외한 상황수용과 자기용서에서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의적인 가해상황에서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보복동기는 높고 비회피동기는 낮은 것으로 나타는 결과

는 박주영(2010)의 연구에서처럼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서 고의적인 피해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려는 동기는 낮아지겠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 가까이 할 경우 비슷한 피해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요인들, 즉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상황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을 파악하는 용서과정의 초기에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이 고의적이었음을 알았을 때는 피해자로부터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서를 복합적이고 인지, 정서, 행동적 변화를 통해서 나타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현상들은 용서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용서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용서의 동기를 측정했다. 용서는 의무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며 더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대처는 용서의 과정 중에 있는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공감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며 용서동기를 높이려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지영(2006)은 자신이 개발한 공감을 통한 용서프로그램이 용서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연구자의 관찰과 회기별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용서수준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광수(2002)와 하요상(2006)은 용서 상담교육이 아동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용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는 용서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감정 다루기 등 공감수준을 변화시키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용서수준을 촉진하였으며 정서의 활용을 제외한 정서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광수(2008)는 자신의 연구에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용서를 비롯한 관련 변인의 양적 성취도 평가와 참여 학생의 참여일지 반응 및 프로그램 평가 반응, 교사의 관찰 등의 내용평가 분석을 통해서 초등학생의 용서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공감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결과적으로 용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을 파악하는 용서의 초기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지각하고 있는 가해자의 가해의도가 고의적일 때, 용서동기의 하위척도들인 비보복동기와 비회피동기가 높은 공감수준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아서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사이에서 용서동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프로그램들의 용서수준의 변화는 인지적 용서, 정서적 용서 및 행동적 용서를 측정하는 Enright(1991)의 용서검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또 다른 하위구성요소인 비보복동기와 비회피동기의 변화는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감안해볼 때, 공감수준향상을 통한 용서수준증진프로그램과 상담과정에서 공감수준이 높아진 피해자

가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지각하는 용서의 초기과정에서 가해자의 가해의도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서적인 회피감정을 다루는 과정과, 보복동기와 회피동기의 변화를 살펴 용서의 진정성과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용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피험자들이 진정한 피해자로서의 감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둘째는 가해의도성의 고의성과 우연성이 제대로 감응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용서수준의 변화를 지필검사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이르는 실제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피해사례들에 대한 피해정도와 가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가해의도성의 정도 등을 통제된 피험자를 표집하여 피험자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에 대한 가해자의 가해의도와 용서동기를 측정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가해와 피해로 인한 실제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조절하기위한 용서는 미덕뿐 아니라 필수 교육과정이 되었다. 공감수준의 변화로 이루려는 용서교육에는 가해의도성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참고문헌

김기범, 이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

- 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3.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수 (2002).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 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1), 165-191.
- 김광수 (2008). 초등학교용서 능력 증진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학연구, 46(4), 207-231.
- 김광수 (2004). 경험과학적 용서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연구심리 18(4), 33-49.
- 김난희 (2009). 독서치료활용 공감증진프로그램이 공감수준과 또래 괴롭힘에 대한 방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시은 (2000). 도덕 판단에서 취학 전 아동의 의도 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 (2006). 공감, 정서와 동기 유형 및 심장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8(1), 21-37.
- 김현주 (2009). 공감수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해연 (2009).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수 (2010). 대학생의 성별과 종교의 유무에 따른 용서와 공감능력.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희 (2003). 공감 교육에 대한 개관 연구. 교육학연구, 41(3), 499-518.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주영 (2010). 용서 귀인이 용서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을 매개변인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순 (2006).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용서의 관계.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정은 (2006). 성격특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신화 (2008). 기혼남녀의 용서와 관련변인 연구: 용서과정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연구보, 29(1), 1-37.
- 양영숙 (2008).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70-94.
- 이남숙 (2003).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공감, 동조, 허구적 독특성 및 유사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은희 (2003). 또래상담훈련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공감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자 (2006). 공감훈련이 교사의 공감수준과 교사-학생 간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지선 (2009). 부모-자녀 갈등과 공감이 용서 및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2008). 용서받기와 용서하기가 심리적 안

- 녕감과 대인신뢰감에 미치는 효과: 완벽주의와 문화성향을 조절변인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2006). 공감을 통한 용서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과 용서수준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효진 (2005). 정성향과 사과 및 인고, 공감이 대인관계의 용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병성 (2003). 共感과 利他行動과의 關係.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궁호, 김지용, 홍미화, 김지현(2002).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궁호 (2002).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3-122.
- 최인숙 (2005). 부부의 위기에 대한 용서경험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인 (2004).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과 도움행동.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하요상 (2006). 용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ndt, T. J., & Berndt, E. G. (1975).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intentionality in person perception and moral judgement. *Child Development*, 46, 904-912.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 (1993).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Enright, R. D. et al. (1992). Interpersonal forgiveness within the helping professions: An attempt to resolve differences of opinion. *Counseling and Values*, 36, 84-103.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4). Piaget on the moral developmet of forgiveness. *Human Development*, 37, 63-80.
- Enright, R. D. (1999).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2) 218.
- Enright, R. D. (2004). *Forgiveness is a choice*. 채규만 역. 용서는 선택이다. 서울; 학지사.
- Hoffman, M.L.(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emicpress.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Trench, Trubner.
- Keams, J. N., & Fincham, F. D. (2004). A prototype analysis of forg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7), 838-855.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ty of Chicago Press.
- Rogers, C.R.(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unseling Psychology*, 2 ,95-103.

- Shultz, T. R. (1980).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ntion. In S.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13)*, Hillsdale, NJ : Erlbaum.
- Shultz, T. R. (1982). Rules of causal attribu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7*(194).
- Takaku, S. (2001).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A dissonance attribution model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0*(1-2), 144-166.
- Wade, N. G., & Worthington, E. L. Jr. (2003). Overcoming interpersonal offenses: Is forgiveness the only way to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343-353.
- William ICKES (2003), *Everyday Mind Reading*. 권석만 역. 마음읽기; 푸른 숲.
- 1차원고접수 : 2010.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1. 3. 14.
최종게재결정 : 2011. 3. 15.

Effects that Empathy according to Perception of offender's intention have on Forgive-motivation

Kim, Sang-Hyun

Keum, Myoung-Ja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s that Perception of offender's intention and victims' empathy have on forgive-motivation. For this, we measured the empathy-level of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and conducte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ith measuring offenders' forgive-motivations in texts after presenting texts about offenders' intentional conditions and coincidental conditions. This study showed that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coincidence, the improvement of victims' empathy-level help victims' forgive-motivations to improve because of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low empathy-level group and high empathy-level group. Also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the improvement of empathy-level can't give some help to improvement of forgive-motivations because there aren't an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low empathy-level group and high empathy-level group. To find the details about how the offenders' intention have effects on victims' forgive-motivations in analysis result, we conducted seco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regarding sub-factors of forgive-motivations(not-revenge motivation, not-avoidance motivation) as dependent variables. In result, the not-revenge motivation were higher in high empathy-level group than low empathy-level group when both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coincidence and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But whereas the not-avoidance motivation were high in high empathy-level group than low empathy-level group when subjects are aware of offenders' intention as coincidence, it was low in high empathy-level group than low empathy-level group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Through this result, the reason why there are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forgive-motivations between high empathy-level group and low empathy-level group when subjects are perceive of offenders' intention as intentional is seemed that the not-revenge motivation of high empathy-level group increase but the not-avoidance motivation decrease than low empathy-level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we searched empathy reported as it has the correlation with the forgive-motivations may have the meaningful effects on forgive-motivations by offenders' intention that subjects are perceive of but may not.

Key words : *Self-Silencing,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